

## 13. '97년도 주택(유형별) 현황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전국의 주택수가 1천만 가구를 돌파해 자동차에 이어 주택에서도 '1천만 시대'가 개막됐다.

또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수가 단독주택수를 앞지르는 해로 기록될 것이 확실시된다.

3월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인구주택센서스' 자료와 지난 2년간 주택공급 실적 및 감실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주택수는 1천62만7천 가구로 사상 처음 1천만 가구의 벽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5년에 전국의 주택수가 9백20만5천 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 1백만 가구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또 95년 3백86만 가구였던 수도권 주택수도 4백만 가구를 넘어 지난해 4백33만5천 가구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백87만9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백86만4천 가구 △경남 98만 가구 △경북 78만5천 가구 △부산 74만8천 가구 △전남 63만6천 가구 등 순이었으며, 제주가 11만8천 가구로 가장 적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수가 단독주택수를 앞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주택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4백58만7천 가구 △아파트 4백45만6천 가구 △연립주택 1백15만2천 가구 △기타 43만2천 가구 등이었다.

또 지난해 전국 주택유형별 점유율은 △단독주택 43% △아파트 42% △연립 11% △기타 4%였다.

90년대 들어 단독주택과 아파트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90년 단독주택은 4백72만7천 가구, 아파트 1백62만8천 가구였던 것이 95년에는 단독주택 4백33만7천 가구, 아파트

3백45만6천 가구로 그 격차가 급감했다.

90만 가구에 달했던 두 주택 유형간 격차는 다시 2년만에 10여만 가구로 줄어들어 올 상반기 중에는 아파트가 단독주택수를 초과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지난 95년 당시 이미 아파트가 단독주택수를 넘어섰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는 아파트 84만6천 가구와 2백11만3천 가구, 단독주택 58만 가구와 1백25만5천 가구로 그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조사됐다.

〈97년도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 천가구)

구 분	유형별 주택현황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기타
전 국	10,627	4,587 (43%)	4,456 (42%)	1,152 (11%)	432 (4%)
수 도 권	4,335	1,255	2,113	807	160
서 울	1,864	580	846	369	69
부 산	748	296	355	65	32
대 구	506	194	260	26	26
인 천	592	137	307	128	20
광 주	304	102	178	9	15
대 전	309	91	173	32	13
경 기	1,879	538	960	310	71
강 원	433	242	143	27	21
충 북	398	214	146	22	16
충 남	539	351	130	34	24
전 북	537	324	172	17	24
전 남	635	452	145	14	24
경 북	785	493	218	38	36
경 남	980	496	402	46	36
세 주	118	77	21	15	5

주택회보